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1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1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7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8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19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9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30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32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4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42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45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국어 영역

문항 번호 : 19

답변 내용 :

이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주된 내용은 정답지 ③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지 ③의 진술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합니다. 지문에서는 가중합을 구하는 원리를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둘째 단락)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에서는 가중치 갱신의 원리를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중략)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중략)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다섯째 단락)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문에서 설명한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하면 가중치 W_b도 일정한 오차 값이 더해져 늘어나는바, 정답지 ③은 적절한 이해입니다.

이의 신청에서는 입력값이 0일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출력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문에서 규정한 출력값 계산 방법은 ‘가중치와 입력값의 곱의 합’과 ‘임계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가중치는 항상 출력값 계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에서는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인용하여 가중치 갱신 양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도 오차 값에 입력값을 곱하지 않고 오차 값의 일부만 가중치 갱신에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지문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자가 인용한 학습 방법은 델타 규칙(Delta Rule)으로서 가중치 갱신 양을 '학습률×오차값×입력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델타 규칙은 인공 신경망이 개발되던 초기에 단층 퍼셉트론에서 가중치 갱신을 위해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수학적 증명 없이 사용되었으나,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민스키(Minsky)에 의해 델타 규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델타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차 값이 '출력값과 정답 간의 차이의 제곱'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활성 함수는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오차 값을 출력값과 정답값 간의 차이의 제곱이 아니라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있고 활성 함수는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가 아니라 임계치에 의해 0과 1로 구분되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 신청자가 인용한 학습 방법은 퍼셉트론의 여러 학습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지문에서는 이와 다른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의 신청에서 인용한 가중치 갱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어 시험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 작성된 독서 지문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문 밖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수능 국어 시험 중 독서 영역은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므로 지문 밖의 지식을 임의로 끌어들여 독서 영역 문항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유형(과목) : 가형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7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30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유형(과목) : 나형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1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1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2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8	정답(문제) 이의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45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생활과 윤리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4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2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윤리와 사상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1	정답 이의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한국 지리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동아시아사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법과 정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경제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유형(과목) : 사회·문화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0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물리 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1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12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화학 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7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생명 과학 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8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17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지구 과학 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1	정답(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5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6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9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물리Ⅱ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4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생명 과학 I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6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 지구 과학Ⅱ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2	문제 이의 신청	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유형(과목) : 일본어 I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7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유형(과목) : 일본어 I

문항 번호 : 30

답변 내용 :

이 문항은 문장 표현 중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a는 「そうだ」의 전문(伝聞) 용법을 묻고 있습니다.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166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보통체의 절에 연결되어, 자신이 직접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은 전문정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정과 과거의 형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
> (오) 去年の冬は寒いそうだった。
>
> (정) 去年の冬は寒かったそうだ。

위 내용에 의하면 a는 비문입니다.

b는 「～かどうか」의 용법을 묻고 있습니다. 庵功雄 외 3 (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179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의문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こと」「の」는 불필요합니다.
「何、だれ、いつ、どこ」등을 포함하는 의문어의문문인 경우,「疑問語(疑問詞)～か」의 형태가 됩니다. 의문어(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선택의문문의 경우,「～かどうか」의 형태가 됩니다. 말미는 보통형이지만, な형용사와 명사의 경우에는「だ」를 넣지 않고 직접「か」가 붙습니다.

○「～かないか」의 형태도「～かどうか」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체에서는「～か」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1) 川村さんが来るか来ないかがわかりません。
예2) 川村さんが来るかがわかりません。

○ 이와 같은 의문이 포함되는 표현의 뒤에 오는 격조사「が」와「を」를 대화체에서는 자주 생략합니다.
예3) 川村さんがいつ来るか知っていますか。
예4) 川村さんが来るかどうか知っていますか。

○ 학습자가 범하기 쉬운 오용은 다음처럼 의문어의문문에「どうか」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5) 川村さんがいつ来るかどうか知っていますか。(×)

위 내용에 의하면 b의「～かどうか」는「～か～ないか」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령「行くかどうか」는「行くか行かないか」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b의「どこへ行くかどうか」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どこへ行くかどこへ行かないか」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겠지만,「どこへ行かないか」부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비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